# 주먹구구 운영에 마운드 붕괴…KIA, 이유있는 추락

'착잡' KIA 타이거즈 선수들의 경기를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김종국 감독. /연합뉴스

## 시즌초 외인 투수 부진·에이스 제구 난조, 투수들에 부담 작용
## 무리한 이닝 쪼개기로 불펜진 과부하…성적 하락 악순환 불러
## 키움전, 9명 투수 쏟아 붓고도 연장 역전패…코치진 교체 변화

마운드 붕괴와 맞물려 추락하고 있는 '호랑이 군단'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가 2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좌완 김유신과 우완 황동하를 말소하고, 우완 김재열과 김건국을 불러들였다. 코치진에도 변화를 줬다.

KIA는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투수 코치 보직 개편을 실시했다"며 "김종국 감독의 요청에 따라 정명원 코치를 잔류군으로 옮기고, 서재응 잔류군 코치를 1군 투수 코치로 보직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감독은 이에 대해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잘 알고, 선수 관리나 1군 경험도 있다"며 서재응 코치의 콜업에 대해 설명했다.

KIA는 최근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순위 싸움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악재가 겹쳤다.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 농사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올 시즌에도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메디나를 전력에서 배제했다.

앤더슨도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위력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성적이 아쉽다. 이의리는 KBO에서도 손에 꼽는 구위에도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턱 없이 부족한 선발진의 이닝에 지난 2년 마무리로 역할을 했던 정해영도 부진 속 5월 30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지만, 예전 폼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올 시즌 KIA의 강점으로 꼽혔던 마운드가 순위 싸움의 변수이자 약점이 됐다.

앞서 28일에도 마운드 엔트리 변화가 있었다. '특급 신인' 윤영철이 10일간의 휴식을 끝내고 선발 등판을 위해 등록됐고, 전날 4.2이닝의 패전 투수가 됐던 이의리가 휴식 차원에서 말소됐다.

윤영철은 올해 프로에 뛰어든 고졸 루키, 이의리는 프로 첫해부터 선발로 활약을 해온 3년 차 선수다.

아직은 관리가 어린 필요한 선수들이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부담이 늘었다. 결국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지켜왔던 두 선수는 개인은 물론 팀이 상황이 최악일 때 어쩔 수 없는 휴식을 취하게 됐다.

선발진의 휴식 타이밍, 불펜의 타이밍도 시즌 내내 지적되어온 부분이다. 결국 28일 불펜 운영의 총체적 난국상이 드러났다.

윤영철이 5이닝 80구로 4-4에서 등판을 마무리한 뒤 임기영을 내세워 6회를 정리한 KIA는 6회말 5-4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연장 11회 승부 끝에 5-7 재역전패로 끝났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임기영은 1사에서 물러났다. 좌타자 김혜성·이정후와의 승부를 위해 좌완 이준영이 나온 것이다. 결과는 우전 안타 뒤 우익수 플라이. 그러자 우타자 이원석에 맞춰 우완 장현식이 올라왔다. 결과는 3연속 볼넷으로 인한 5-5 동점.

전상현이 7회 2사에서 투입돼 급한 불을 껐고, 8회 2사 2루에서 다시 불펜이 가동됐다. 팬들의 예상대로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최지민이 좌타자 김혜성에 맞춰 한 박자 빠르게 투입됐다. 김혜성을 삼진으로 잡은 최지민은 9회는 삼자범퇴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다.

하지만 득점에 실패한 KIA는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이미 마무리를 소진했던 상황, KIA는 결국 최지민을 10회 다시 마운드에 올렸다. 최지민이 2.1이닝을 버텼지만 10회말에도 득점에 실패한 KIA는 결국 11회 백기를 들었다.

김혜성과 이정후라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 앞선 이닝과 달리 우완 황동하가 투입됐다. 고졸 2년 차, 1군 경험이 7경기에 불과한 황동하는 2개의 볼넷을 내줬다. 이어 좌완 김유신이 나왔지만 역시 연속 볼넷과 함께 밀어내기로 실점이 올라갔다. 결국 컨트롤이 좋은 윤중현이 나와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경기 분위기는 이미 키움으로 기울었다.

선발진 공백 속 대체 선발로 예정됐던 황동하, 김유신은 결국 이 경기를 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날 KIA는 선발 윤영철을 제외하고 8명의 불펜진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불펜진에서 9개의 볼넷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줬다.

표면적으로는 '볼넷'을 남발한 선수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좌우 놀이 속, 이닝 쪼개기 운영으로 불펜진에 과부하가 걸렸고, 부담 많은 상황에서의 등판이 늘면서 실패가 이어졌다.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야구는 투수놀음이라고 한다. 좋은 투수자원들을 보유하고도 원칙, 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마운드 고민을 안게 된 KIA는 김도영과 나성범이라는 기다렸던 자원들의 활약에도 9위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투수코치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진 김종국 감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철기둥' 김민재, 뮌헨 이적하나

## '이적 전문' 로마노 기자 "뮌헨의 바이아웃 금액 지불만 남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철기둥' 김민재(나폴리·사진)가 '독일 거함'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에 구두 합의를 했다는 유럽 이적 전문가들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 이적 전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29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뮌헨이 김민재와 구두 합의를 마쳤다. 2028년까지 5년 계약이 임박했다"라며 "뮌헨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구단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다. 뮌헨의 다음 단계는 바이아웃(최소이적료)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의 소식을 전하는 'PSG Chief'도 트위터 계정에 "PSG의 영입 대상이었던 김민재가 뮌헨과 5년 계약에 완전히 합의했다"라며 거들었다.

김민재는 이번 유럽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뒤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탰고, 2022-2023시즌이 끝난 뒤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히며 스스로 몸값을 올렸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3월 김민재의 시장가치를 5천만 유로로 평가했다가 이번 달 새로 산정하며 6000만 유로(약 860억 원)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나폴리에 합류할 당시 2천500만 유로였던 그의 가치는 2.4배나 증가하며 '태극전사 캡틴' 손흥민(토트넘·5000만 유로)을 넘어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민재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필두로 PSG에 이어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까지 러브콜을 보내며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김민재와 뮌헨의 협상은 다른 경쟁 클럽들을 앞섰고, 이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모양새다. 한편, 지난 15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려고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김민재는 다음 달 6일 퇴소한다. /연합뉴스

# '코리안 몬스터' 다음달에는 본다

## 토론토 단장 "정상 속도 회복"
## 류현진, 올스타전 후 복귀 가능성

조만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빅리그 마운드에서 힘차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29일(한국시간) TSN 등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정상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앳킨스 단장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과 채드 그린은 재활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복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수순으로 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단장의 말대로라면 류현진은 7월 중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수술대에 올랐던 류현진은 올해 7월 복귀를 목표로 재활 훈련에 전념해왔다.

재활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그는 최근 불펜 투구를 거쳐 실전처럼 타자를 상대하는 라이브 피칭 훈련까지 소화했다.

류현진은 마이너리그에서 최종 점검을 한 뒤 구단 결정에 따라 빅리그 복귀 일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이라면 류현진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인 7월 중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류현진의 회복 속도는 토론토의 후반기 전력 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토론토는 에이스 알렉 마노아가 극심한 부진으로 이탈하면서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가 비어 있다.

토론토 구단으로선 류현진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류현진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선발 투수 영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합뉴스

# 광주FC, 울산현대 넘고 안방 질주 잇는다

광주FC가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1위 울산현대를 상대로 7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사진은 앞선 울산 원정에서 이강현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 광주축구전용구장서 다음달 2일 K리그1 20라운드

광주FC가 '디펜딩 챔피언' 울산현대를 상대로 안방 질주를 이어간다.

광주는 7월 2일 오후 6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0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공식전 무패 행진은 멈췄지만 울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지난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FA컵 경기에서 0-4패를 기록했다. 대패 속 창단 첫 FA 4강 진출도 무산됐지만 주전 선수들을 총 투입한 전북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FA컵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한 광주는 리그 무패행진 잇기에 나선다.

광주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5위로 점프했다. 특히 앞선 19라운드 경기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2247일 만에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뜨겁다.

또 최근 6경기에서 9명의 선수가 11점을 만드는 등 다양한 루트와 상황에서 골이 나오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하다.

광주는 전북과의 '리턴매치'이자 FA 대결에서 광주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안영규, 엄지성, 아사니, 두현석 등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다.

무더위 속 진행되는 강행군에서 전력을 비축한 광주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울산전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전에서 시즌 1호골에 이어 2호골까지 연달아 넣으면서 득점포 가동에 들어갔던 토마스는 앞선 전북전에서는 45m 드리블을 선보이면서 경기장을 달궜다.

A매치 기간 알바니아 대표로 나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아사니도 득점포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U-24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두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을 하면서 도움을 기록했던 정호연은 전북전에서 후반 투입돼 도움을 올렸다. 앞선 대전전 득점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기록된 포인트.

또 엄지성과 김한길, 이희균 등 스피드를 갖춘 선수들이 측면과 중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두현석의 날카로운 크로스도 위력적이다. 두현석은 앞선 전북전에서는 이순민의 시즌 첫 골을 도우면서 6번째 도움도 올렸다.

이번 상대 울산은 지난 시즌 K리그1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에도 1위 독주를 펼치고 있는 강 팀이다.

이청용, 주민규, 김영권, 정승현, 설영우 등 국내 선수들을 비롯해 바코, 마틴 아담, 아타루, 루빅손, 보야니치 등 외국인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완벽한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강팀 앞에서도 광주다웠다. 지난 원정에서 1-2 역전패는 기록했지만 적극적인 공격 축구와 뜨거운 투혼으로 울산을 압박했었다.

또 울산은 제주유나이티드와의 FA컵 8강전에서 주축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체력적인 부담 속 패배의 여운까지 남아있다.

광주가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공격전개로 1위 울산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